

## 二十四節氣 觀點의 肺主治節에 대한 연구

김병수<sup>1</sup> \*

### Study on “Regulatory Function of Lung(肺主治節)” from the Viewpoint of 24 Seasonal Division

Kim Byoung Soo<sup>1</sup> \*

<sup>1</sup>Dept. of Physiology, Colleagu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Regulatory Function of Lung(肺主治節)” is one of the major function of lung, but its meaning is still controversial. The word “治節(Regulatory Function)” was first discovered in 『黃帝內經(Huangdineijing)』. In Chinese medicine text of modern China, physiological meaning of “治節”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wo; one is respiratory function, and another is to help cardiovascular function of the heart. In addition to this, “治節” has been construed in various ways, but all of them is not realistic. There has been several viewpoints that ‘節’ in ‘治節’ means 24 seasonal divisions and they can be representatively found in 『東醫寶鑑(Donguibogam)』. Based on all of these views, modern western medical physiology is requirement for further study about physiology of internal organs.

**Key Words** : 肺主治節(regulatory function of lung) 治節(regulatory function) 24節氣(24 seasonal divisions), 肺(lung)

### I. 서론

肺에 대한 한방생리학적 내용 중 肺主治節은 주요기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中醫基礎理論』과 『黃帝內經研究大成』 등<sup>1)2)</sup>에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문헌<sup>3)4)</sup>에서 『中醫基礎理論』에서 제시된 ‘肺主

治節’의 의미가 불확실함을 밝혔고 『內經』의 본래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내 한의계의 인식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肺主治節은 肺의 한방생리기능을 설명하는데, 폐의 기능에는 肺主氣, 宣發肅降, 肺朝百脈, 通調水道 下輸膀胱 등의 생리기능이 있다. 肺氣能의 한의학적 연구가 보다 심화되기 위해서는 肺主治節의 의미가 다른 肺 생리기능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肺가 治節을 한다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治節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이고 內經에서 주장한 治節의 내용과 中醫基礎理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治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할 것이다. 또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kbsoo25@dju.krr Tel : 042-280-2616

투고일 : 2016년08월07일 수정일 : 2016년08월13일

게재일 : 2016년08월14일

- 1) 印會河 外. 中醫基礎理論(第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88, 2006.
- 2)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 研究大成(中). 北京, 北京出版社, p1015, 1994.
- 3) 李如輝. 發生藏象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3, 2003.
- 4) 刘力紅. 思考中醫. 廣西城, 廣西師範大學出版社,

한 二十四節氣의 의미로 治節을 이해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하여 ‘治節出焉’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 II. 본 론

### 1. 治節의 기원과 일반적 이해

治節은 『素問·靈蘭秘典論』에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肺의 기본 기능으로 언급이 되고 있으며, 「靈蘭秘典論」의 내용 순서상 心 君主를 輔佐하는 기능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980년대 中醫基礎理論(1판)<sup>5)</sup>에 제시된 ‘治節’은 治理와 調節로 정의를 내렸다. “肺主治節”은 『素問·靈蘭秘典論』에 근거하여 肺는 心臟을 보좌하여 全身의 氣血運行 등의 작용을 治理 調節한다고 하였으며 관련 주요 기능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肺氣는 血液運行의 動力이며, 둘째는 呼吸을 담당하여 一身의 氣之本이 된다 하였고, 셋째는 肺는 宣發 肅降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국내 한의학 개론 교재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한의학 총강’<sup>6)</sup>은 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후 2000년대 이후에 나온 中醫基礎理論(2판)<sup>7)</sup>에서는 내용이 보강되어서 4가지의 治節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폐는 호흡을 담당한다.”로 一呼一吸으로 체내 外氣의 기체 교환을 완성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氣機를 調節한다.”로 肺의 呼吸 운동은 氣의 升降出入의 구체적인 표현이어서 肺의 節律의 一呼一吸의 운동은 全身 氣를 升降出入시켜 氣機를 通暢하게 한

다. 셋째로는 “심장의 血行을 돕는다.”로 肺朝百脈으로 全身의 血液을 肺를 통과하게 하여 기체 교환을 하여 全身을 돌게 한다. 또한 肺主氣로 氣機를 調節하여 氣가 行하면 血이 行하는 것이다. 소위 肺가 능히 心臟을 輔助한다는 것은 전신 혈액 순환을 推動 및 調節한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水液의 代謝를 조절한다.”로 宣發肅降을 통해 수액 수포를 調節하거나 推動하여 水液의 運行과 排泄을 하게 한다.

이상을 비교하여 보면 초기의 中醫基礎理論에서는 治節의 생리적 의미가 肺가 心臟을 도와 혈액 유통하는 것이 첫째이고, 호흡 기능과 폐의 宣發肅降을 주관하는 것이 다음이었다. 이는 혈액의 추동기능을 갖춘 心臟을 보조하는 폐의 역할을 治節의 주된 의미로 본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中醫基礎理論 2판에서는 肺를 기준으로 治節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우선 肺가 呼吸을 담당하는 것 즉 산소 호흡을 하는 것이 治節의 의미임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에 氣機調節로 肺의 節律에 따른 승강출입을 서술하고 세 번째로 心臟의 血行을 돕는 것을 제시한 다음 전환에는 없었던 水液代謝 조절 기능이 추가하였다. 이상의 변화를 보면 治節의 주된 기능은 心臟을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肺가 호흡을 주관하는 쪽으로 살짝 의미의 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료들을 보아도 以上의 中醫基礎理論에서 제시한 내용에서 많이 다르지 않다. 폐계내과학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治節’은 管理 調節을 말하며 주로 肺와 心의 기능이 상호협조하고 共調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생명 활동을 가리킨다. 또한 폐활량과 外氣의 寒熱과 體內의 眞氣에 대한 調節, 폐의 吸滿과 呼虛, 增大増小 등은 一呼一吸에서 調節되니 그 機能을 治節로 論하였다.”<sup>8)</sup>

동의생리학 교재에서는 肺主治節은 呼吸調節과 氣機調節로 구분하여 氣血 개념으로 다음과

5) 印會河 外. 中醫基礎理論(1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9, 1989.

인민위생출판사의 증의기초이론의 대표적인 서적으로, 본서의 앞부분 설명을 보면 원래는 30여년간 1판에서 5판까지 있는 다음 1985년도에 출판을 정리하고, 편저자의 설명은 1987년도로 제시되었으나 출판물 인쇄는 1989년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1980년대의 내용으로 이해해도 무난할 듯하다.

6) 나창수 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pp227-228, 2003.

7) 印會河 外. 中醫基礎理論(第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88, 2006.

8) 전국한외과대학 폐계내과학교실. 폐계내과학. 서울, 나도, p3, 2013.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이것도 증의학 서적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9)</sup>.

“治節의 의미는 相傳之官으로서의 肺의 기능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sup>10)</sup> 治節은 관리, 조절의 의미로 心氣의 활동을 보좌하여 인체의 氣血운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이다<sup>11)</sup>. 心과 더불어 膈上에 위치하고, 人身之氣를 主하여 心氣와 더불어 정상적인 氣血 제공을 통해 營衛와 臟腑의 기능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칙성과 자율성을 말한다<sup>12)</sup>. 폐가 淸虛之臟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營衛를 周行하고, 陰陽氣를 通行시켜 津液대사를 완성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sup>13)</sup>. 따라서 治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호흡조절로서 호흡기관인 폐가 자율적·규칙적으로 기능이 일어날 수 있는 의미이며,<sup>14)</sup> 다른 하나는 氣機조절로서 승강 방식의 규칙성이 있어야 氣機대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sup>15)</sup> 肝氣와 肺氣의 승강운동에 대한 규칙성을 유지하는 의미이다<sup>16)</sup>. 따라서 호흡과 氣機대사의 규칙성과 자율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治節의 특성을 통해 氣와 血의 관계와 순행의 규칙성 또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sup>17)</sup>.”

이와 같이 동의생리학 교재에서는 呼吸調節을 氣로, 氣機調節을 肝肺間의 升降運動으로 보아 血로 구분하여 肺主治節의 기능을 氣血로 구분

하고 있다.

## 2. 治節의 의미 확대와 문제점

이와 같이 肺主治節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면서, 『黃帝內經 研究大成』<sup>18)</sup>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이 매우 많아졌다. 肺主治節의 근거를 「靈蘭秘典論」에서 삼고 있으며, 中醫基礎理論 교재에 근거하여 治節呼吸, 調理氣機, 助心行血, 通調水道 4개 분야로 정리한 것을 제시하고 氣, 血, 津液, 臟腑의 조절 운행이 肺의 治節 기능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治節氣’, 呼吸調節, 肺氣調節, 宗氣調節에 해당하는 ‘治節血’, ‘治節津液’, ‘治節氣機’, 治節心 治節肝 治節脾 治節腎으로 세분화 된 ‘治節五臟’으로 매우 세세하게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해석을 들여다보면 肺主治節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로는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發生藏象學』을 저술한 李如輝<sup>19)</sup>는 肺主治節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肺의 生理功能의 高度概括”이라는 설명을 인용하면서도 현재 설명되고 있는 治節의 機能이 이미 임상적 상황과는 乖離되고 있으며, 임상상에서 治節機能이 失調되었을 때의 병기 증후 내용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침과 방약도 찾을 수가 없었으며, 반면에 『內經』에서 治節은 肺藏의 중요한 기능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思考中醫』로 유명한 劉力紅<sup>20)</sup> 역시 『中醫基礎理論』이 『內經』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예시로 “肺主氣, 肺主治節”을 들었다. 그는 肺主氣의 氣는 『中醫基礎理論』에서 주장하는 一身之氣와 呼吸之氣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六節藏象論』에서 제시된 “五日謂之候, 三候謂之氣, 六氣謂之時, 四時謂之歲”에 근거하여 氣는 二十四節氣여야 한다고 하면

9) 전국한의학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p276, 2008.

10) 『素問靈蘭秘典論篇』,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

11) 『素問五臟生成篇』, “諸血者皆屬於心, …… 諸氣者皆屬於肺”.

12) 『類經·藏象類』, “肺與心皆居膈上, 位高近君, 猶之宰輔, 故稱相傳之官. 肺主氣, 氣則則營衛臟腑無所不治, 故曰治節出焉”.

13) 『素問注釋匯粹經脈別論』, “肺雖爲淸虛之臟, 而有治節之司, 主行營衛, 通陰陽, 故能通調水道, 下輸膀胱”.

14) 『中國醫藥匯海論肺之功用』, “肺爲呼吸器官, 一吸氣納入, 一呼炭氣吐出”.

15) 『醫編·五臟生克說』, “氣有降則有升, 無降則無升, 純降則不升. 何則? 濁陰從肺右降, 則胸中曠若太虛, 無有壅塞. 淸陽則從肝左升, 是謂有降有升”.

16) 『臨證指南醫案』, “肺氣從右而降, 肝氣由左上升”.

17) 『醫學眞傳氣血』, “人之一身, 皆氣血之所循行. 氣非血不和, 血非氣不運”.

18)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 研究大成(中). 北京, 北京出版社, p1015, 1994.

19) 李如輝. 發生藏象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3, 2003.

20) 劉力紅. 思考中醫. 廣西城, 廣西師範大學出版社, pp60-62, 2006.

서, 肺主治節의 節은 節氣를 언급한 것이지 治理와 調節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몇몇 학자들의 견해는 일견 타당한 면모가 보인다. 분명히 治節의 기능이 따로 있다면 肺主氣가 失調된 증상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생리상에서 어떠한 기능이 治節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야 하는데 『中醫學基礎理論』에 근거한 治理 또는 調節은 막연하게 인체 전체의 氣機를 조절하는 의미를 지을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肺主治節의 의미를 다시 규명해야 한다.

### 3. 24節氣 관점의 肺主治節

肺主治節에서 節은 二十四節氣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문헌을 중심으로 본 편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劉力紅의 『思考中醫』 관점

『思考中醫』는 中醫基礎理論을 廢棄하고 『內經』과 『傷寒論』의 本義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서적이다. 기존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물론에 기반한 중의학 이론이 아닌, 중의학 원서에 해당하는 『內經』과 『傷寒論』의 本旨를 이해해서 중 의학을 배워야 하고 또한 중 의학의 고수에서 중 의학을 전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적이다. 아래는 肺主治節에 대한 『思考中醫』의 내용을 제시 한다<sup>21)</sup>.

“肺主治節”에 대해 中醫基礎理論에서는 ‘治節’을 ‘治理와 調節’로 설명하여 內經의 本義와 크게 거리가 있다<sup>22)</sup>. 무엇이 治節인가? 治節의 개념은 『素問·靈蘭秘典論』에서 나오며 그것은 『素問·六節藏象論』에 나오는 ‘氣之本’과 相互呼應한다. 우리는 앞에서 三候가 一氣임을 알았고 실제로는 하나의 총괄적인 호칭인 것이다. 細分하여 말하면 一個月은 二個氣이며 각각 하나는 節氣, 하나는 中氣라고 한다<sup>23)</sup>. 이것이 소위

총칭 24節氣이다. 사실 節과 氣는 매우 밀접한 개념이다. 治節은 당연히 이 ‘節’을 다스리는 것으로 어찌 이것이 治理와 調節의 문제가겠는가? 이것이 調節이라면 무엇을 調節하는 것인가? 肺主氣와 肺主治節이 관련이 있다면 其他 다른 思考도 가능하다. 肺는 胸中에 위치하여 肋骨로 감싸여 있다. 肋骨는 몇 개가 있는가? 左 12, 右 12로 모두 24개가 있다. 이는 바로 24節氣와 합당한 숫자이다. 이렇게 交合되는 것이 필연적인가? 이런 이유는 一年에 24節氣의 변화가 먼저 있는 것일까 아니면 24개 氣가 먼저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가히 이 문제를 思考할 수 있다. 이밖에 節과 關節이 有關한데 우리는 먼저 사람의 四肢 大關節이 모두 몇인지 알 수 있는가? 모두 12개이다. 每 한 개의 關節은 2개의 關節面으로 조성되는데 합치면 24個面이고 이것은 한 개의 面이 節氣와 相應하고 한 개의 面은 中氣와 상응한다. 四肢는 四時에 應하고 매 한 肢에는 6개의 關節面이 있어 六氣가 一時(季節)가 되는 것과 상응한다. 關節과 節氣가 相關하여 天氣變化와 더불어 관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든 사람은 모두 아는 것이다. 우리는 주위에 연배가 높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특히 關節에 병을 앓은 사람은 천기변화에 대하여 민감하여 기상대의 기상예측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상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말했는데 그녀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절은 인체가 천기변화를 感知할 수 있는 하나의 感應藏置임을 알 수 있다. 이런 感應器는 肺에서 유래되어서 管掌이 된다. 肺와 節氣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肺의 意義도 변화되어야 한다. 天人相應은 실제상 肺主氣와 肺主治節 方面에서 보아야 한다. 다만 우리들이 中醫基礎理論을 보고 또 보아도 근본적으로 절대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급하게 內經을 中醫基礎理論으로 대치한다면 그 대들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겠는가?”

이상과 같은 『思考中醫』의 주장을 고찰하여

한데, 그 이름이 節氣와 中氣임을 본 서적에서 밝히고 있다. 참고로 節氣는 陽曆이다.

21) 刘力紅. 思考中醫. 廣西城, 廣西師範大學出版社, pp60-62, 2006.

22) 본 내용을 논문의 문맥에 맞게 적절히 해석하였다.

23) 24절기는 12월로 구분하면 각 1월에 2개 절기가 있다. 앞의 절기와 뒤의 절기가 구분이 되는 것은 확실

보면, 저자의 주장처럼 肺主氣의 ‘氣’가 內經의 모든 문헌에서 15일을 1氣로 설명하는 節‘氣’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肺가 一身之氣나 呼吸之氣를 주관하다는 의미도 분명 內經에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靈蘭秘典論」에 나오는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에서의 節은 저자의 주장과 같이 節氣로 인식됨이 확연히 보인다. 한국에서도 『東醫寶鑑』 및 중국서적을 번역하지 않은 문헌에서는 肺에 24孔이 있어서 24節氣에 상응한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곤 한다<sup>24)</sup>. 또한 節氣를 언급한 다음에 關節로 의미를 확대하는 부분<sup>25)</sup>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內經의 저자가 분명 節氣의 觀點을 갖고 內經을 저술했다고 추론한다면 關節의 의미는 부차적인 것으로 새로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한국 도가의학의 觀點

한국 자료 중 肺와 24節氣를 연계한 대표 자료는 『東醫寶鑑』이다. 『東醫寶鑑·肺臟·肺形象』에서 “肺之形似人肩 二布葉數小葉中有二十四孔 行列以分布諸藏清濁之氣 主藏魄”<sup>26)</sup>이라 하여 肺에는 24孔이 있어서 清濁之氣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본 내용은 王氷注에 근거한 것으로 『素問·五運大論』 “在藏爲肺”의 王氷 주석에 나오며<sup>27)</sup> 내용의 뒷부분에 “爲相傳之官 治節出焉”이 붙는 것을 보면 본 내용은 肺主治節에 대한 설명이 맞다. 또한 이 내용은 『石塘理氣韓醫學』과 『醫學輯要』 등에 제시되고 있다.

『石塘理氣韓醫學』에서는 “肺有二十四孔하고 治節이 出焉이라.”고 소제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동의보감을 재해석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

다.

“二十四孔의 行列이란 十二經에 清濁二氣가 있다. 清氣의 十二經氣와 濁氣의 十二經氣가 出入을 한 二十四孔이라. 十二經氣 卽 十二月의 陰陽으로 二十四氣의 循環作用을 司하였다. 大分背脊骨24椎骨은 屬天이요, 肋骨24個는 屬地이요. 肺有二十四孔은 屬人이라 하겠다. 內外天地氣를 肺臟에서 交換하고 있으며 水火를 濾過하여 四時를 循環시키니 24空은 곧 24節의 節序와 同理이라. 24節 亦是 大寒-小暑 12節은 火를 濾過하여 司天하고 大暑-小寒 12節은 水를 濾過하여 司地라<sup>28)</sup>.”

이와 같이 『石塘理氣韓醫學』에서도 肺의 24節氣는 外部로 脊椎 24개와 肋骨 24개와 연계가 됨을 주장하였고, 肺의 24孔에서 외부 천기를 받아들일 때 水火를 여과하여 특히 歲半前에는 火를 濾過하고 歲半後에는 水를 濾過하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醫學輯要』에 오면 더욱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sup>29)</sup>. 『醫學輯要』에는 여섯 번에 걸쳐서 肺가 24節氣에 相應함이 나오며, 그 내용도 더욱 구체적이다.

“肺는 天을 象徵해서 最高位에 자리 잡아서 四臟을 덮고 있고 肺葉에 二十四孔이 뚫어져서 그 구멍으로 二十四氣가 交代로 드나든다<sup>30)</sup>.”라고 하여 24節氣임을 분명히 하였다.

“空空相通이라 함은 肺의 모양이 外貌로 보아서 一個의 고깃덩이나 속이 텅 비어서 그물로 東西南北으로 엮어져 있고 속에는 몇 數十個의 이름 모르는 房이 있는데 이 房을 氣孔이라 하여서 二十四個로 들어 있어서 一年 二十四節氣를 管掌하게 되어 있음을 뜻한다<sup>31)</sup>.”라고 하였다.

“肺는 五臟을 덮고 있어서 五臟의 日傘이라고 하여 五臟의 天이 되어 二十四孔으로 天의 二十

24)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p17, 2006. 한남수 저. 석당이기한의학. 서울, 의성당, p461, 1992.

25) 刘力紅. 思考中醫. 廣西城, 廣西師範大學出版社, pp60-62, 2006.

26) 허준.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민출판사, p322, 1999.

27) 肺之形似人肩 二布葉數小葉中有二十四孔 行列以分布諸藏清濁之氣 主藏魄也 爲相傳之官 治節出焉  
김선호 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下). 대전, 주민출판사, p70, 2004.

28) 한남수 저. 석당이기한의학. 서울, 의성당, p461, 1992.

29) 의학집요는 송점식 교수가 저술한 것으로 한국 도가의학에 해당한다.

30)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p17, 2006. [藏府構造로 본 小天地]

31)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p380 2006. [藏府-肺]

四節期에 應해 天氣를 받아들여 大腸으로 傳해서 大腸으로 하여금 地에 放出케 하여 天地의 氣가 서로 通하게 하니 이 關係로 肺와 大腸이 南北으로 各各 떨어져 있다<sup>32)</sup>.”라고 하여 24절기에 따라 肺에서 받은 天氣를 大腸으로 傳한다고 설명하였다.

“肺가 氣를 主함은 共認된 事實이나 氣를 어떻게 主하며 어떠한 結果가 나오는 것은 모든 醫書에 詳細한 說明이 없고 다만 道經에만 具體的 說明과 肺에 該當한 說明이 있으나 亦是 理解하기 어렵다. 肺에게는 二十四孔이 뚫려 있어서 天의 二十四節의 氣가 各各 該當되는 구멍으로 出入하면서 手太陰에게 影響을 준다. 二十四節氣는 各各 말은 바 五藏이 있어서 春風은 肝이 맡았으니 春節氣는 立春 雨水 驚蟄 春分 清明 穀雨的 六節이며, 夏熱은 心이 맡았으니 立夏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大暑의 六節이고, 秋燥는 肺가 맡았으니 立秋 處暑 白露 秋分 寒露 霜降의 六節이며, 冬寒은 腎이 맡았으니 立冬 小雪 大雪 冬至 小寒 大寒의 六節이다. 그 中 濕은 脾가 맡아서 特定한 九十日 一節의 現象은 나타내지 아니하고 春夏秋冬의 季月에 끝으로 十八日씩을 맡아서 合 七十二日을 管理하게 되므로 春夏秋冬의 四節이 모두 十八日씩을 빼앗겨서 九十日이 七十二日로 削減되어서 脾土와 같이 平等한 五節이 된 것이다<sup>33)</sup>.”라고 하여 肺의 24孔이 하는 역할은 道家 내용에 근거한 것을 밝혔고, 24節氣 四季節을 구체적으로 배속하여 肝心肺腎에 배치되고 脾臟은 각 藏에 배치된 節氣를 일부 공유함을 밝혔다.

“心の 七竅는 더운 氣運이 下에서 上으로 올라가므로 上竅가 陽이 되고 下竅가 陰이 되나 肺의 二十四竅는 陰을 主로 하므로 上이 陰이 되고 下가 陽이 되어서 下六竅는 春 上六竅는 冬으로 推算한다. 一竅가 一節을 主管해서 一節이 天地二氣를 主하므로 二十四竅가 四十八種의 氣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肺의 症候는 多樣해서 五藏中에서 第一 病이 잘 걸리고 病이 들어도 第一 病이 治癒되기 쉬워서 肺를 女藏 또는 嬌藏이라 한다. 卽 手太陰肺는 足少陰腎처럼 강한 丈夫의 氣象이 없고 女子처럼 柔해서 굳은 筋介가 없고 天氣에 따라서 時時刻刻으로 자주 變한다<sup>34)</sup>.”라고 하여 肺의 24孔이 아래에서 6竅씩 위로 네 줄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고 아랫줄이 春에 해당하고 가장 윗줄이 冬에 해당함을 밝혔으며, 各節이 天地二氣를 主해서 전체 48種의 氣가 통과함을 밝혔다.

“肺가 氣를 主해서 모든 氣는 全部 肺에 屬해 있다. 肺는 六葉으로 구성되어서 左右兩側에 別道로 작은 귀가 붙어 있고 六葉에 二十四孔이 뚫려 있어서 二十四節候를 觀測한다. 이런 關係로 因해서 五藏 中에 最上位에 앉아 있어서 內에서는 五藏中의 權位者로 心君의 命을 全臟腑에 傳達해서 命을 奉行하고 外에서는 天氣에 接近해서 新舊의 氣를 交替시켜서 內部를 淨潔케 하고, 節候가 다가오면 節氣에 맞추어서 臟氣를 調整한다. 그러므로 宣傳官職品을 맡고 있어서 天氣가 들어오면 그 氣運을 받아들여서 臟에서부터 三百六十五骨節에 이르기까지 한 곳도 빠짐 없이 宣布한다. 그러나 肺는 女臟으로 굳세지 못하고 柔弱해서 寒暑에 抵抗力이 없고 寒하면 寒으로 쫓아가고 熱하면 熱로 쫓아가서 感氣에 잘 걸리고 또 잘 낫기도 하므로 肺를 嬌藏이란 別名을 붙이게 된 것이다. 嬌藏이라 함은 強臟인 腎처럼 主觀이 없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 永久히 믿고 依支할 수 없다는 말이니 肺에 對해서는 다른 臟과 같이 峻烈한 藥을 써서는 안 된다<sup>35)</sup>.”라고 하여 肺主治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다. 그 기능은 외부로는 新舊의 氣를 交替시켜서 內부를 淸결하게 유지하고 節氣에 맞추어서 臟氣를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 기운을 받아들여서 藏府에서 骨節까지 全身을 分포하여

32)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p67 2006. [前陰, 後陰]

33)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pp151-152 2006. [手太陰肺經]

34)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pp151-152 2006. [手太陰肺經]

35)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pp406-407 2006. [氣-肺主氣]

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肺主治節의 節은 24節氣임이 분명해 보인다. 中醫基礎理論에서 언급한 治理와 調節은 본질적인 설명보다는 2차적인 부연설명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24節氣에 따라 움직이는 肺의 24孔은 현대 생리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 4. 인체 생리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肺主治節

李如輝<sup>36)</sup>는 肺主治節에 대하여 內經과 역대 문헌을 제시하면서 內經의 뜻과 역대 문헌의 의미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로 中醫基礎 등에서 언급한 역대 문헌의 治節에 대한 기능의 이해는 임상과는 완전히 벗어난 허망한 상태이며, 治節失調에 대한 病機證候 내용이 없고 또한 이에 상응하는 針과 方藥을 찾을 수 없어서 內經의 本義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治節이 肺의 주요한 생리 기능이라고 해도 실질상 ‘治節’은 ‘肺氣’의 개념과 동일하다. 즉 저자는 肺主氣의 개념으로 충분히 肺主治節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후세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셋째로는 治節의 의미를 治理 調節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의미는 內部環境의 안정된 平衡狀態를 維持하는 것이다. 이렇게 治節의 의미는 모든 장부가 갖고 있는 治節(治理와 調節)의 효능이 아니라 오로지 肺臟이 갖고 있는 기능이어야 한다.

이상의 3가지를 근거로 李如輝는 治節의 기능은 肺가 心臟의 行血을 補佐하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하며, 內經의 前後編에 근거하여 心肺와 관련된 論述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여 아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素問·平人氣象論』 “人一呼脈再動，一吸脈亦再動，呼吸定息脈五動，閏以太息，命曰平人。” 이는 현대생리학 중에서 호흡과 맥박의 비례가

1:4라는 결론이다.

『靈樞·動脈』 “其清氣上注于肺，肺氣從太陰而行之，其行也，以息往來，故人一呼，脈再動，一吸，脈亦再動，呼吸不已，故動而不止。”

『素問·五藏生成』 “諸血者皆屬於心，諸氣者皆屬於肺，此四支八谿之朝夕也。” 여기서 朝夕은 潮汐의 의미로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가는 節律性에 비유한 것이다.

『難經·第一難』 “人一呼脈行三寸，一吸脈行三寸，呼吸定息，脈行六寸”

이상의 문헌을 근거로 呼吸의 節律性 生理를 이해하여 형성된 理論으로 결과적으로 李如輝는 治節이란 肺가 정상적인 생리 리듬을 유지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이는 3가지 방면으로 분석이 된다고 제시한다<sup>37)</sup>. 그 첫째는 호흡리듬(節律)이며, 둘째는 심박리듬과 호흡빈도수와 맥박(心率)의 비례이며, 셋째는 衛氣節律과 寤寐節律이다. 그는 또한 依義의 治節과 廣義의 治節을 구분하였다. 依義의 治節은 呼吸리듬에 따른 심장박동 및 맥박 등을 보조하여 呼吸頻도와 規律을 맞추는 생리작용이며, 廣義의 治節은 依義의 治節 내용 외에 肺臟과 衛氣와의 關係, 睡眠의 생리 리듬 협조관계를 포괄한다<sup>38)</sup>.

이상의 관점을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肺主治節의 생리기능을 제시하였고, 그 핵심은 심박수에 비례하는 호흡리듬이다. 다만, 수면생리까지 연계하는 것은 治節 기능의 2차적인 기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5. 治節을 통한 다양한 의미 고찰

##### 1) 治節에 대한 內經 文獻 이해 및 생리학적으로 고찰

治節의 의미는 체내에서 결과적으로 심박동과 관련이 높은 호흡리듬에 대한 이해로 귀결이 된다. 그렇다면 脈搏이나 搏動이 呼吸度數에 따라 중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內經의 원문을 근거

36) 李如輝. 發生藏象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159-164, 2003.

37) 李如輝. 發生藏象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159-164, 2003.

38) 李如輝. 發生藏象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159-164, 2003.

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靈樞·癰疽』<sup>39)</sup>을 보면 “血和則孫脈充滿溢，乃注於絡脈，皆盈，乃注於經脈。陰陽已張，因息乃行，行有經紀，周有道理，與天合同，不得休止。”라고 하여 經脈이 陰陽으로 나뉘어 펼쳐질 때 호흡에 따라 行하게 된다는 표현(因息乃行)은 심장 박동으로 經脈이 순환해도 呼吸이 주도하는 듯이 묘사가 된다. 또한 『靈樞·動脈』에서 12경맥 중 유독 手太陰肺經과 足少陰腎經, 足陽明胃經만이 搏動하는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한 답으로 “肺氣從太陰而行之，其行也，以息往來，故人一呼，脈再動，一吸，脈亦再動，呼吸不已，故動而不止”라고 제시하고 있다<sup>40)</sup>. 이는 경맥이 운행할 때 호흡으로 왕래하는 것(以息往來)을 보여주며, 호흡에 따라 맥박이 2번씩 뛰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脈動과 呼吸이 상호 연관이 있을 때 이상의 문헌들은 呼吸이 보다 더 주도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심장의 추동기능인 맥박과 호흡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려면 당연히 ‘宗氣’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靈樞·邪客』<sup>41)</sup>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伯高曰 五穀入于胃也，其糟粕津液宗氣，分爲三隧，故宗氣積于胸中，出于喉嚨，以貫心肺，

而行呼吸焉.”라고 하여 宗氣는 胸中에 쌓여있는 氣로 心肺를 관통하는 것으로 呼吸을 행한다. 여기서도 宗氣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氣인데, 반드시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內經』의 宗氣에 관한 문헌에도 심장과 폐가 같이 있을 때 폐가 더 주도적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2) 治節을 통한 藏府論의 전반적 고찰

肺主治節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최근의 한의학 원론에서 소개된 장부의 기능은 『中醫基礎理論』에 근거한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의가 있듯이 실용적이지 않은 한의학 생리이론은 무비판적인 수용보다는 합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초기의 중의기초이론 형성과정이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한의학 교재 성격이었기에 양방 장부생리에 기반하여 한의학을 정리한 것이었다<sup>42)</sup>. 이후 중국에서 중의학 기반으로 재정리가 되고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넓은 영역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의 기능으로 모든 생리기능을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리 기능은 사실상 임상에 실제적으로 쓰일 수가 없다. 생리기능이 失調된 것이 병리가 되고 이를 근거로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생리기능은 임상상에서 적합하게 병태생리를 구현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대인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해당 생리기능을 제시했는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대적인 장부생리와 연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부생리의 失調가 병기 증후와 약과 침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탐구해야 한다.

治節에 대한 이해를 24節氣로 해석하면서, 과

39) 김기욱 문제곤 공역.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p389, 2014.

“혈액이 조화롭게 잘 퍼지면 먼저 孫絡을 채우고 난 다음 絡脈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孫絡 등이 모두 가득 찬 다음에는 다시 經脈으로 흘러 들어가 陰經과 陽經의 氣血을 충만하게 하여 호흡에 따라 규칙적으로 운행하게 되는데, 해와 달의 운행처럼 일정한 도수에 따라 경맥 속에서 쉬지 않고 순환합니다.”

40) 김기욱 문제곤 공역.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p292, 2014.

肺氣는 手太陰經을 따라 운행을 시작하는데, 肺氣의 운행은 사람의 호흡에 따라 왕래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숨을 내쉬면 맥이 두 번 움직이고, 한 번 숨을 들이쉬면 또한 두 번 움직이는데, 호흡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맥박도 멈추지 않습니다.

41) 김기욱 문제곤 공역.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p326, 2014.

“음식이 위에 들어간 후에 소화흡수 과정을 거쳐 그 찌꺼기(糟粕)는 하조로 나오고, 津液은 중조로 나오며, 宗氣는 상조로 나와서 세 길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중기는 가슴속에 쌓여 위로 향해 목구멍(喉嚨)으로 나오고 아울러 心肺를 관통하여 호흡을 맡게 됩니다.”

42)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이 많은 역할을 했다. 1950년대만 해도 양계초 풍우란 등이 음양오행은 미신이라고 주장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사송령 등을 필두로 음양오행은 다시 중국문화의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국내 서적들은 어떤 것들은 1950년대 내용이 번역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최근의 내용이 번역된 것들이 있다. 氣를 자꾸 미세한 物質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유물적 사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고대에는 시간적인 해석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4節氣 또는 春夏秋冬 四時에 따른 생리변화를 언급한 내용이 많은데, 최근의 연구 기조는 시간의 개념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장부생리를 서술할 때 시간적 적용이 생리적 변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더욱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장부생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한의학에서 언급한 장부와 현대 서양의학에서 밝히 장부생리와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대에는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조직 내의 세포 수준에서 생리기능을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고대인들의 장상론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느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또는 다른 신경계 또는 내분비계에서 다루어야 할 범주인지를 이제는 정리정돈 되어야 할 것이다. 肺主治節만 예를 들어도 폐의 호흡기능은 골격근을 통해 수의적으로 호흡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심혈관계의 맥박에 따라 필요한 산소량이 증감하기 때문에 호흡리듬이 그에 맞춰 움직여진다고 보지만, 道家 또는 요가에서는 호흡 조절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는 폐의 호흡리듬을 조절하면 반대로 심장의 박동리듬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대의학에서도 호흡 주기 동안 숨겨져 있는 호흡중추(respiratory center)로부터 “과다한” 신호가 나오면 근처에 있는 혈관운동중추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다한 신호들은 교감신경과 미주신경을 통한 심장으로의 흥분과 전달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sup>43)</sup>고 한다. 향후 이런 관점에 대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연결고리를 이론적으로 더욱 접근해 추가적인 새로운 지견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 Ⅲ. 결 론

이상의 논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肺主治節의 節은 24節氣의 시간성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24節氣에 따른 인체 내 영향을 체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박동에 비례하는 호흡리듬 조절로 맥박과 심박동이 호흡과 비례하는 리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폐의 호흡리듬이 전신 장부에 미치는 생리기능이 肺主治節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폐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대적 의학생리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印會河 外. 中醫基礎理論(1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 印會河 外. 中醫基礎理論(第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3. 나창수 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03.
4. 전국한외과대학 폐계내과학교실. 폐계내과학. 서울, 나도, 2013.
5. 전국한외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8.
6.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 研究大成(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4.
7. 李如輝. 發生藏象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8. 刘力紅. 思考中醫. 廣西城,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9. 허준.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민출판사, 1999.
10. 김선호 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注(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4.
11. 한남수 저. 석당이기한의학. 서울, 의성당, 1992.
12.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2006.
13. 김기욱 문재곤 공역.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 법민문화사, 2014.
14. John Hall. 의학생리학(12판).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2012.

43) John Hall. 의학생리학(12판).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p156, 2012.